



한천 저류지 지하수 함양시설 결국 폐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7개 기관 공동 구축 연 200만t 함양 예측... 폭우시에도 유입 전무도, 효과 없다 판단... 혈세 50억여원만 날린 꼴

제주특별자치도가 55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한천1·2저류지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이 결국 폐쇄됐다. 제주자치도는 5일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가뭄과 홍수수증가에 대비해 설치했던 한천1·2저류지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까지 55억원

(국비 30억원)을 투입해 만든 시설로 바다로 흘러가버리는 하천유출수를 관정을 통해 땅속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만든 지하수인공함양 시설이다.

우선 1단계로 지난 2009년 8월 제주도 오동동 한천 제 2저류지에 심도 35~48m, 직경 400mm의 인공함양정(물 주입관)10개를 설치하고 이어 2010년 한천 제1저류지(저류용량 43만3000t) 내에 자동제어시스템을 부착한 10개의 인공함양정

을 추가로 설치했다. 한천 제2저류지와 마찬가지로 각 함양정에는 전동식 밸브, 탁도 및 수위 측정기 등을 장착한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했다.

이곳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한 이유는 한천 상류유역(해발 500m·탐라교육원 인근)상류에서 하류로 유출되는 연간 빗물 유출량이 평균 713만t, 최대 1440만t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곳의 인공함양정을 통해 연간 200만t의 지하수가 함양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10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2019년 제5호 태풍 '다나스' 내습시에도 지하수 인공함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천 저류지내 인공함양정은 맨

아래쪽 저류지안에 설치돼 있어 이 곳 저류지에 물이 차야 지하수 인공함양이 이뤄지는데 2019년 당시에도 물이 차지 않았다. 2021년에도 저류지에 물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에 용역부실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책임자는 전무하고 제주자치도는 시설 유지·보수 문제 등을 감안해 결국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수 인공함양 효과가 없어 폐쇄를 했고 이후 도내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3곳을 새로 만들었다"며 "이곳을 통해 지하수 인공함양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문인관점에서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돼야...”

7조2000억원의 올해 제주도정의 살림살이 규모이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제주도민 한 사람에게 집행되는 금액으로 파악해 보면, 연간 1000만원 가량이 도민 1인에게 집행되는 꼴이다. 과연 제주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또는 도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면 제주의 살림살이를 더욱 잘 이해해 볼 수 있다.

지난달 새 도정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당초 6조4000억원에



양 경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응한 복지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환경은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용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작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작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관심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예산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나아가 내년도 예산과 재정 운용에도 기여하는 과정이 된다. 제주도의회는 결산심사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도정의 정책방향에 담긴 첫 본예산이라는 의미에서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조성,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 등 새 도정의 핵심과제가 구체적 사업계획과 합리적 재정계획을 가지고 도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도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도모하고 제주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장기표류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끝내 좌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7일자로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취소 사유는 2008년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 연장을 반복하며 취약사항과 승인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청문을 거친 결과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사업자인 제주분마 이호랜드는 개발 사업기간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사업변경안을 신청했고, 도는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개월 내 보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가 제시한 ▷지난해 12월 30일 개발사업시행 연장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 이행 상황 및 계획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구체적 서류 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제주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등의 조건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승인이 14년만에 취소됐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피해 복구 나선 오 지사 6일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대정읍 해안도로에서 오영훈 지사가 태풍에 쓸려온 돌을 치우고 있다. 강희만기자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워킹그룹 출범

도의회 보건복지위, 정책 전문가 등 25명 구성

제주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이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해당 워킹그룹은 보건복지안전

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효율적 추진체제 마련을 위해 특강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사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 정책대안을 발굴하게 된다.

김경미 위원장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저출산, 고령화에 다양한 사회 구조 변화로 사회복지 정책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돌봄정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구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2022년 제주어 축제 제주어 왕중왕 뽑기 대회 안내

- 목적:** 사라지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주어의 어휘 사용과 바른 표기를 내용으로 하는 경연을 실시함으로써, 제주어의 보전·확산과 세대 간 전승의 분위기를 조성함
- 행사명:** 2022년 제주어 축제 제주어 왕중왕 뽑기 대회
- 일시:** 2022년 10월 10일(월) 10:00 ~ 12:00
- 장소:** 제주아트센터 제2주조장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사)제주어보전회
- 운영방법** (팀별 자가 차량 탑승 경연)
 - 청소년(초·중·고생) 1명 포함 2대 이상의 3인 가족이 한 팀을 구성하여 경연(참가)
 - 문제 연속 출제, 답안지 회수, 즉석 채점으로 순위 결정 (경우에 따라 예선·본선 등 실시)
 - 사상금: 장려금제 1팀 400,000원, 최우수상 1팀 300,000원, 우수상 3팀 각 150,000원, 장려상 5팀 각 100,000원, 격려상 14팀 각 50,000원, 특별상(직계 3대 참가) 각 30,000원
- 유의사항**
 - 신청서 대표자는 반드시 청소년이어야 함
 - 직계 3대 참가 팀: 가족관계 증명서 스캔하여 신청서에 첨부, 이후 제출 불가함
 - 팀 구성이 가족의 범위(3촌 이내)를 벗어나거나 기타 결격 사유 발생 시 행사 중이나 전·후 참가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함
- 참가신청**
 2022. 9. 9. 09:00 부터 선착순 24팀(참가 대상 확인 후 참가 불가 시 사전 통보, 5팀에 한하여 순번으로 대기 후 결원 시 참가)
 - 신청서 작성: 본회 홈페이지(www.jejuo.com)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신청서 제출: jejuo2008@naver.com
 - 문의: 064-723-2495
 - 신청서 송부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이종실

제주 신인가수 수강 장학생 모집

- 지향:** 노래하는 아름다운 나의 인생! 아름다운 예술 인생!
- 과정:** 발성·트레이닝·교정·녹음 등 (CD제작안내·별도)
- 대상:** 만20~55세 신인가수 지망 남녀 15명 내외
- 일정:** 22.9.27~12.13, 12주간 매주 화요일 19~21시
- 장소:** 서광로 223 (5F) 능림 앞, 실습 홀+소홀2실
- 비용:** 당60만원 전액지원 (단,카톡&현장오디션 85%이상 인종)
- 특전:** 가수 인증과정, 각종무대/강사/봉사활동 출연 장려
- 접수:** 22.9.5~9.22, 오디션 9.24~25①카톡②현장(개별통지)

2022 협회 하반기 목요지음음악교실 무료 회원 모집(일링가요)

- 대상:** 만60세 이상, 다문화가족, 한달도민 등20명
- 일정:** 22.10월초~12월말 12주/회, 접수 9.12~9.23
- 특전:** 월회 (월내래 셀프 레크레아션 뮤지션) 제공

대관: 양호한 시설 공존활동, 4~12인 소모임, 회원+노래+셀프간식 가능, 실비

문의 사무국 ☎064) 900-9706 010-3697-1085

제주특별자치도가수협회장 송광일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함께 할 청소년 지도사를 모집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개원 한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전국 청소년수련 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입니다.

저희 수련원에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갈 역량 있는 청소년 지도사 분들을 모집 합니다.

- 모집 대상**
청소년지도사 자격(2급 또는 3급) 소지자, 2명 청소년 인증 수련활동 프로그램 진행 유경험자 우대, 레크리에이션 진행 가능자 우대
- 주요 업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등
- 주요 복지혜택**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의료비 지원, 계열사(호텔, 리조트 등) 무료 이용 등
- 지원 방법**
수련원 홈페이지 내 당사 입사지원서 양식 작성 및 제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booyoungyouth.com 공지사항 참조)
- 문의 및 제출**
문의: 064)760-5700 제출: youth@booyoung.co.kr

문의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064)760-5700

토지 구합니다

· 제주시 ·

구좌읍 조천읍

조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특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건축 베네하우스

문의: ☎ 064-723-1105